

가

갈보리선교회 브라가의 소식들

Beracah Valley News

제39차 갈보리선교회 특별전도팀 국내순회전도 보고

제39차 국내순회전도를 하나님의 은혜가운데
마치게 되었습니다.

언제나 동일하게 큰 능력으로 함께 해 주신
예수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며 함께 기도하며 협력해 주신
국내외의 많은 교회와 목사님들 그리고 본회 회원교회와
후원회원, 기도회원, 동참한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길 기원하며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특별전도팀구성**

- 총지휘: 김승석 목사(분당충만교회, 선교회장, 단장)
- 메세지 및 지도회원: 김중남 목사(충남과도교회, 이사), 박광재 목사(영광교회, 이사), 목사 김현철 전도사(분당충만교회, 기자재간사), 김현성 전도사(분당충만교회), 주정림 간사(분당충만교회, 서기), 윤정화 간사(분당충만교회, 회계/위생간사), 류준복 간사(분당충만교회, 중국어간사), 김아영 간사(분당충만교회, 영어간사), 김혁 간사(분당충만교회, 차량간사), 박지연 집사(분당충만교회)
- 단원: 이기성(분당충만교회, 엔지니어)의 17명



기간: 2012년 1월 8일(주일)~1월 20일(금)
대상지역: 첫째주간-강원도(철원, 포천)
둘째주간-경기도(화성, 양평)

8일	① 6사단 19연대 신교대	15일	① 51사단 사령부
9일	① 6사단 2연대 1대대	16일	① 20사단 기갑수색대대
10일	① 문혜장애인요양원 - 장애인복지시설 ② 6사단 2연대 3대대	17일	① 천사의집 - 노인복지시설 ② 20사단 69포병대대
11일	① 성모요양병원 - 노인전문요양시설 ② 5포병여단 101대대	18일	① 브니엘노인전문병원 - 노인전문요양시설 ② 20사단 91포병대대
12일	① 은혜장애인요양원 - 장애인복지시설 ② 6사단 7연대	19일	① 은혜의집/지계의집 - 장애인복지시설 ② 20사단 방공대대
13일	① 소망원 - 시각장애인시설 ② 15사단 수색대대	20일	① 신망원 - 아동복지시설 ② 20사단 78포병대대

후원&기도회원, 단원 모집안내

1. 후원회원: 물질과 기도로 도움을 주시고자 하는 개인, 단체, 교회-후원금 송금은 월별 또는 연간으로 선택해서 본 회가 발송하는 MICR용지를 사용하거나 무통장 입금하시면 됩니다.

2. 기도회원: 모든 사역을 위해 매일 동참하시고자 하는 개인, 단체-인터넷 홈페이지 상이나 또는 본회가 별도로 보내드리는 보고서의 기도 제목을 답지하시고 매일 기도해주시면 됩니다.

3. 특별전도팀, 유치장전도팀 단원: 실무사역훈련과 국내외의 선교사역에 참여하고자 하는 개인(학생 교인이상)

- *농협: 017-12-077384
- *국민은행: 825-21-0082-437
- *우리은행: 146-08-237723
(예금주/김승석)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TEL/031-713-0807/ www.calvarymission.com)

단지 찬양하는 것이 좋아서
선택한 군중병이었으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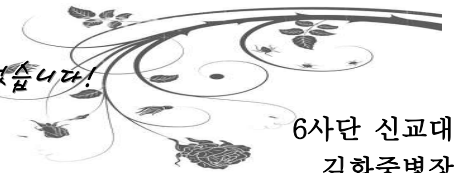
20사단 방공대대
본부중대 박춘수일병

저는 걸로로는 군중병이라 불리고 있지만 사실상 신앙이 깊거나 성경에 대해 많은 것을 알거나 다른 그 누구보다 특출난 것이 없는 병사에 불과합니다. 단지 찬양하는 것이 좋아서 선택한 군중병이었습니다. 하지만 1월 19일 저녁, 갈보리선교단원들이 보여주신 연주들과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통하여, 멋모르고 찬양했던 저에게 찬양이 왜 즐거운지, 사람들이 왜 교회를 다니고 전도를 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수련회도 가보고 항상 기도할때 사람들이 왜 울고 찬양하고 하는지 궁금했고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고싶었던 저에게, 생각지도 못한 대답을 주셔서 살짝 들뜬 마음으로 관람을 했습니다. 항상 힘들 때나 즐거울 때나 찬양할 수 있는 아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극하시느라 수고하신 분들 모두에게 제가 은혜받은 만큼 많은 사람들을 즐겁게 하시는 분들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위선과 은혜로운 드라마로

제 마음을 다시 잡을 수 있었습니다!



6사단 신교대
김화중병장

저회부대에는 위문예배가 잘 오지 않아서 더욱 기대가 컸었는데 기대한 것 이상으로 은혜가 되었고 기쁨, 환희,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의 설득력 있는 말씀이 기억에 남습니다. 전역을 두 달 앞두고 다소 미래에 대한 고민이 있었는데 언제부턴가 사람의 생각으로 자꾸만 불안한 생각만 했었습니다. 믿음과 기도로 주님께 맡기면 되는 것이었는데 가장 중요한 걸 잊고 살았습니다. 다시 한 번 마음을 잡을 수 있는 좋은 계기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름다운 위선과 은혜의 드라마로 제 마음을 다시 잡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시간이 자주 있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갈보리선교회 파이팅!

복음이라는 확실한 메시지가
중심이 된 공연과 말씀

15사단수색대대
한용태상병

우선 우리 수색대대에 귀한 걸음을 해주신 갈보리선교회에게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재미나 흥미 위주의 위문공연이 아니라 복음이라는 확실한 메시지가 중심이 된 공연과 말씀이 참 좋았습니다. 군에서 흔히 접할수 없는 복음을 듣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또 갈보리선교회에게 감사드립니다. 길고 힘든 선교 일정 가운데 항상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가득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장병들 가운데

51사단 사령부본부대
신기훈상병

단원들이 하나가 되어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이 참으로 아름답고 보기 좋았습니다. 전체적인 분위기가 매우 고전적이면서 의상조차도 매우 사실적인 것 같습니다. 단원들의 능숙한 실력이 복음의 메시지가 전해지는데 더욱 효과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갈보리선교단의 집회를 통해 예수님의 복음이 장병들 가운데 분명하게 전달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그날 밤 그 답을 듣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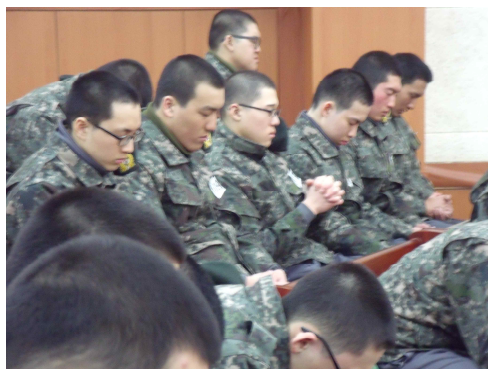
51사단 보급수송 근무대
정재우상병

개인적으로 1990년대의 향수와 그리움을 가진 저에게 그 때의 교회에 대한 이미지와 그 특유의 느낌이 있던 집회였습니다. 시간이 흘러가며 어제, 오늘, 내일 변하는 세상에서 어릴 적 느낀 그 포근함, 변치않는 그 사랑, 아무것도 모르던 시절 넘치는 축복과 은혜를 받은 그 시간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사람이 보기엔 우연인 우리의 세상사이지만 주님이 보시기에 계획된 것이기에 부대에서 교회에 가기 전 저는 기도 하였습니다. '지금 저는 오늘밤 열릴 하나님께서 계신 신성한 집에 가려고 준비중입니다. 주님 부디 이 더럽고 죄 많고 어리석은 이가 그 집에서 회개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은 것도 죄라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동안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진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어디를 가든 하나님 앞에 멋멋하고 그 마음이 경건한 자로 거듭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그날 밤 그 답을 듣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대로 지켜라"

앞으로 가게 될 이 길을 성경과 함께 가겠습니다.



주님을 떨리하고

나 편하게만 살았던 것 같아 후회가 됐다.

15사단 특수임무대

임하람일병

평소에 보지 보했던 것들을 보게 되어 흥미로웠다.

우선 평상시에는

아침에 예배드리드라

피곤하고 졸려서 예배를 집중해서 드리지 못했었는데

이번 예배는 드라마도 기억에 오랫동안 남을 것 같고

특히 목사님의 설교가 너무 인상적이었고

가슴에 와 닿았다.

요즘 들어 주님을 떨리하고 재미를 위해서만 나 편하게만

살았던 것 같아 후회가 됐다.

그리고 나 자신을 한 번 더 돌아보는 계기가 된 것 같다.

설교를 듣고 많은 반성을 하게 됐고 회개하게 되는 은혜로운

시간이었다. 앞으로 종종 이런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수고하셨습니다. 파이팅

하나님의 나라에 보탬이 되고

더욱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사람

6사단 신교대

박정기상병

군 생활을 하면서 이런 공연을 보게 될 줄을 상상도 못했다. 재미있는 경험이었고, 아름다운 노래와 드라마를 통해 전해지는 활기있고 아름다운 분위기는 매우 인상 깊었다.

이번 공연으로 인해서 그동안 군생활을 하면서 느끼지 못했던 감정들을 느낄 수 있었고 당당한 자세로 연기한 사람과 사람들의 표정연기에서 큰 감동을 느낄 수 있었고 프로 같은 느낌이 들어서 너무 만족스럽고 내입가에 미소가 지어졌다.

공연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리기 위해 자기시간을 헌신 사람들에게 깊은 찬사를 보내고 싶었고 나도 전역을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보탬이 되고 더욱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형언할 수 없이 불타오르는 성령님

20사단 69포병대대

이영재

일단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제 안에 계신 성령이 다시 불타오르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드라마를 보는 동안 코끝이 찡해지고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특히 주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채찍질과 멸시 당하는 장면에서는 주님의 사랑과 자비를 다시 한 번 깨닫게되는 찡릿함을 주셨습니다. 형언할 수 없이 불타오르는 성령님을 느꼈습니다. 복음에 관한 설교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마태복음 17:22~23 말씀에서 “내가 죽고 삼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는 말씀에 대한 진리를 다시 한 번 전파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이 실제로 일어났고 거짓이 아니니까 현재까지 기독교가 있는 것이고 진리 라는 것을 정말 제 가슴 안에 다시 새기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이곳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다는 것이 정말 저에게 위로가되고 힘이 되었습니다. 또한, 현재사회에서 문제되던 자살에 대한 확실한 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삶과 죽음의 주권은 오직 주님께만 있고 자살을 한다면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것이라는 말씀은 저도나중에 다른 사람들에게 확실히 답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듣는 동안 정말 가슴이 뜨거워졌으며 주님께서 저를 택하셔서 자녀로 삼으시고 먼저 사랑해 주신 것을 다시 한번 감사기도 드렸습니다. 갈보리선교단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범사에 감사하며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 안에 얽매이는 삶, 승리자의 삶으로 나가겠습니다.



몸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나타내는 모습을 보며

6사단 2연대 1대대

하유승군종병

우선 1대대 병사들을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군종으로서 죽어가는 우리 전우들의 영혼들을 보며 너무나 안타까웠는데 역시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몸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나타내는 모습을 보며 큰 기쁨과 위로를 받았습니다. 많은 프로그램이 있었지만 마지막 목사님 말씀이 가장 와닿았는데 그것은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을 권면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시간이 부족해 많은 것들을 나눌 수 없지만 우리의 생각보다 크시고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언제나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갈보리선교회에 평강과 희락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갈보리 선교회를 통해 주님께 술려드리는 기도

20사단 91포병대대

함경주상병

“주님 군복무의 소명을 다하고 있는 저와 전우들을 잊지 않으시고 갈보리선교회를 통해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아버지의 속삭임을 느꼈고 그들의 손짓을 통해서 아버지의 어루만짐을 느꼈습니다. 주님 갈보리선교회 같은 군선교회를 더욱 부흥케 하여주셔서 군대에 있는 약한 영혼들을 붙잡아 주시옵고 더욱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것에 감사하고 모든 것에 회개하는 저희가 되도록 이끌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

주님께 곧바로
인도가 되는 전도

소망원

송창규원장

실제적인 전도방법을 볼 수 있었고
역시 전통이 있는 선교단답계
심금을 울리고
주님께 곧바로 인도가 되는
그런 전도 방법에 다시금
새로운 눈을 뜨게 되었다.
우리 소망원에서
주님을 영접했으면 하는 분이
몇 분 계셨는데
그분들이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하고 소망해 본다.
앞으로 우리 소망원과
계속된 교류를 통해
주변의 주민들에게도
주님을 전할 수 있으면 좋겠다.
대단히 감사하다.



얘기로만 듣던 성경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브니엘 노인전문병원
박영옥 사회복지사

얘기로만 듣던 성경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풀이를 한
무언극이 인상 깊었고
잘 듣지 못하는 어르신도
이해를 하고 아쉬워하는 모습과
박수를 치시는 모습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좋은 내용을 알차게 진행을 함으로써
예수를 믿지 않는 제 주변인에게
전도하고픈 마음이 일었습니다.
성심 성의껏 프로그램을 진행해주신
목사님과 간사님, 그 외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 번의 인연으로 끝이 아닌
지속되는 인연이 되었으면 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채워지지 않았던 갈증이 한 번에!!!
소망원
한지혜사원

은혜의 비가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주3회 예배만으로
채워지지 않았던 갈증이
한 번에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희 가족들의 성경 지식을 쌓는대도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고
눈높이를 맞추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의 어느 귀한 손님을
모신 것 보다 더욱 최선을 다해

문혜장애인요양원
김선영사회복지사

매년 환과가 기승을 부리는 이맘때 쬐이
면 따뜻한 마음과 밝은 얼굴로 우리 시설
을 방문해 주시는 갈보리선교회! 올해도
어김없이 우리 요양원의 문을 두드려 주
셨습니다. 장애인들이 먹는 약소한 식탁
을 대접하면서 감사함으로 음식을 대하는
이 분들을 보았습니다. 주의가 산만한 지
적장애인 80명을 앉혀놓고 세상의 어느
귀한 손님을 모신 것 보다 더욱 최선을
다해 찬양하고 말씀을 전하며 최고의 모
습으로 그들 앞에 서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아니라면 이 어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 갈보리선교회 위에
있음을 느낍니다. 늘 승리하는 선교회 되
길 기도합니다.

박수치며 찬송하시는 분들의 얼굴에
기쁨이 넘치는 모습을 보며

집회 날짜가 정해지고 날마다 기도하면서 갈보리선교회를 기다렸습니다. 병원 개원
하고 처음으로 열리는 공연이 복음집회가 된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병원의 환
우분들과 모두를 사랑하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미 하나님을 알고 계시는 분들과
믿지 않는 분들 모두 조용하게 드라마를 보시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
다. 박수치며 찬송하시는 분들의 얼굴에 기쁨이 넘치는 모습을 보며 저 또한 은혜받
았습니다. 갈보리선교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길 기도드
립니다.

철원성모요양병원
안경희사회복지사

말은 없지만 강력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중앙양로원 요양원
강성우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찬양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손끝과 팔 하나하나에 힘있고 '꼭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분은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라는 말은 없지만 강력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런 말씀을 제대로 읽어 보지도 않은 저를 반성하게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정해놓은 질서와 법은 지키면서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을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하며 매일 기도를 하며 살아가도록 결심을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사탄의 유혹에 현혹되지 않으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예배시간 내내 다시 한 번 생각하고

되돌아볼 수 있어서 감사했다.

20사단 62여단 3중대
상병:조왕제

이번 예배는 군중병 생활을 하면서 오랜만에 외부에서 위문을 와서 드렸던 예배였다. 보통 지역교회에서 격주로 성경공부를 하기위해 오거나 사단교회로 위문팀이 오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조금은 설레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하게 되었다.

예배 순서에는 복음성가, 위십, 솟드라마와 강사분의 설교가 있었는데 조금은 다른 방식으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설교를 들으면서, 드라마를 보면서, 그동안 잊고 살았던 것을 깨닫게 되었는데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주님께 순종한다고 하면서 내 멋대로 교만하며 죄를 짓고 살지는 않았는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였다.

생각해 보면 아주 기본적인 것이었다. 죄를 짓고 회개를 안했던 것, 혼자 해결해 보려고 아등바등 거렸던 것, 주의 은혜를 잊고 살았던 것 등등 예배시간 내내 다시 한 번 생각하고 되돌아볼 수 있어서 감사했다.

군생활을 하다보면 매 순간이 치열하게 살아가는 과정인 것 같다. 하지만 이제는 바른 길 이정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깨닫고 하나님께 매인자로 살 수 있도록 더 기도하고 말씀을 읽어야겠다. 또 나보다 더 어려워하는 전우들과 믿지 않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며, 이번 예배를 통해 많은 전우들이 하나님을 더 알고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기를 더욱 간절히 기대하고 기도하겠다.

여기까지 이끄시고 오늘 많은 은혜주신 하나님과 선교회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나 같은 사람도 믿을 수 있겠고
믿음이라는 것을 소유할 수 있겠구나'

5사단 신병교육대
상병 박병휘

천국! 지옥! 죄인은 천국에 가지 못하고 지옥에 간다! 이런 생소한 말씀을 들으니 어색하기도 하고 사실 상냥 낮 뜨겁기도 했다. 그렇지만 나는 천국에 가고 싶은 사람이다. 누가 지옥에 가고 싶겠나? 그럼 천국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위문팀으로 온 갈보리선교회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었다. 이런 저런 말씀을 들었는데 그 정답은 회개하고 죄 용서함을 받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는 것이다. 이러한 믿음을 소유하면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는 열쇠를 소유 할 수 있는 것이다. 사실 이전에는 그러한 말씀을 들었을 때 믿을 수 없었고 남 이야기 인줄 알았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들으며 생각이 바뀌었다. 간증을 듣고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보니 '나 같은 사람도 믿을 수 있겠고 믿음이라는 것을 소유할 수 있겠구나' 라는 마음이 생겼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 같은 죄인들이 죄 사함을 받았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주님.....

주님을 따르길 원합니다.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모두 하나님의 계획 때문이었군요. 감사합니다.

25사단사령부
일병 김한별

갑작스럽게 우리 상송교회로 갈보리선교회가 선교활동을 온다고 한다. 약간의 착오로 정말 예고 없이 마련된 시간이라 '오 하나님 저희 교회는 준비한거라고는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하나요?' 하며 갈보리 선교회에 오기를 기다렸다.

이 날 나는 우리의 계획은 상관없이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대로 흘러간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다. 급하게 준비해야 했지만 우리 군중병들과 갈보리선교회의 형제자매님들이 힘을 모으자 금방 준비 된 것이다. 그리고 시작된 갈보리선교회의 아름다운 찬양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몸짓들..... 오직 하나님 아버지 한분만 바라보는 사랑스럽고 따뜻한 눈빛들..... 나는 내가 이 자리에 서 있음에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렸다.

"아버지 우리 군중병들과 25사단 전우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시기 위해 갈보리선교회를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 자리에 제가 있게 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정말 감동적이었다. 열정적인 위십과 찬양! 정말 천사가 나에게 빛을 주는 듯 한 느낌이었다. 순간적으로 빠져들게 되었고 눈물이 흘러 내렸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모든 것이 아름답고 기쁨이 넘쳐 더욱 감동적이다.

드라마를 보면서 나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는 것 같았다. '이럴 수가.....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많은 죄를 지었던가?' 나는 도저히 정신을 차릴 수 없었다. 모든 무대가 끝날 때까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갈보리선교회가 찾아온 이유는 모두 하나님의 계획 때문이었군요. 감사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계획 덕분에 저는 정말 많은 것을 알고 얻을 수 있었습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고 확실하였다.

간사 김현철

처음 강원도에 순회전도를 간다고 했을 때 “아~ 왜 추운 겨울에 하필이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추운 철원에 가는 것인가?” 하는 생각을 했다. 따뜻한 베트남&캄보디아를 꿈꾸던 나에게는 정말 절망적인 소식이 아닐 수 없었다. 더구나 경기도 양평! 이곳은 평소에 자주 가던 곳이라 별로 기대감이 들지 않았다. “겨울이면 따뜻한 남쪽 제주도,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정도는 가줘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칠없는 꾸념을 하며 ‘혹한기 훈련이다!’ 하는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결의를 다지며 순회전도에 임하였다. 역시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고 확실하였다. 우리는 꼭 가야할 곳! 만나야 할 영혼들을 끊임없이 만나게 되었고, 그 갈급한 영혼들에게 우리의 온 열정과 정성을 담은 순서순서를 전하였다. 그 어느 때보다 열심히 했던 순회전도여서 그런지 첫 주 첫날 집회가 마친 후부터 목이 잠기기 시작하여 좋은 소리를 내지는 못하게 되었다.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알짜배기 순회전도였다.

그리고 또 하나 감사한 것은 이번 순회전도는 그 어느 겨울 순회전도보다 따뜻하였고, 오히려 눈이 내리기를 기대하게 할만큼 너무나 눈이 내리지도 않은 것이었다. 숙소도 어느 때 못지 않게 적절한 곳으로 잡아주셔서 모두 편히 쉬며 피로를 풀 수 있었다.

이렇게 우리들의 갈 길을 밝히시며 낮은 자를 들어 높은 자를 부끄럽게, 겸손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린다.

정신과 몸은 비록 불편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귀중한 영혼!

엔지니어 이기성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시작된 39차 국내순회전도의 일정이 어느덧 5일째로 접어들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말씀을 늘 상기하면서 전도집회 장소에 모인 영혼들을 바라보았다. 특히 문혜장애인요양원과 은혜장애인요양원의 원생들을 바라 볼 때에는 더욱 그 말씀이 은혜로웠다.

정신과 몸은 비록 불편할지 모르겠지만 저들도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귀중한 영혼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명심하며 집회를 시작하였다. ‘말씀을 제대로 듣고는 있는지? 저 말씀을 깨닫기는 하는지?’ 여러 가지 의문이 들 때도 있었지만 저들 중 하나님이 선택하신 영혼이 분명히 있기에 우리가 이곳에 온 것임을 믿으며, 한 곡 한 곡 찬양이 불러 질 때 마다 곁에 앉은 원생들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제대로 발음하지도 못하면서도 나름 애쓰며 찬양을 따라 부르고 기도하는 저들의 모습은 가식없는 순수한 영혼의 모습일 것이다. 겉으로는 일그러진 얼굴과 불편한 몸일지라도 저들의 영혼은 어느 성도의 열심에 뒤지지 않을 것이다.



실생활대의 가장 중요한 시간을

보내게 될지도 모르는 이분들 앞에서

단원 조민수

내게 있어 세 번째 순회전도를 감당하고 있다. 첫째 주간은 강원도 지역이다. 출근으로 유명한 곳이어서 옷을 두툼히 입었다. 추위로 고생할 걱정도 했지만 예상외로 날씨가 너무 좋았다. 전도하는 자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사랑을 느끼며 더 힘을 내서 전도 집회에 임했다.

오늘 낮에 갔던 성모요양병원은 이름과는 다르게 목사님이 계신 곳이었다. 그 분은 원래 목사님 운전기사 일을 하셨는데 후에 신학을 배워 목사님이 되셨다고 한다. 굉장히 눈물이 많으셔서 집회를 보시면서도, 또 작별인사하실 때에도 눈물을 보이셨다. 주의 일을 하는 사람과의 만남을 귀히 여기시는 모습에 나도 감동을 받았다. 몸이 불편하고 연로하시지만 아이들 만큼이나 순수한 할아버지와 할머니들을 보면서 단 한 순간이라도 이 집회에 방해거리가 되지 않기를 기도했다. 이 세상 삶이 얼마 남지 않은 이분들에게 왜 우리를 보내셨을까? 바로 그들이 이 복음을 듣고 한 사람이라도 더 천국 가는 백성되게 하시려고 보낸 것이다. 일생일대의 가장 중요한 시간을 보내게 될지도 모르는 이분들 앞에서 결코 습관적으로 하거나 최선을 다하지 않는 모습으로 있어선 안되는 것이었다. 다시 한 번 내게 주어진 사명이 얼마나 큰 것인지 생각해보게 되었다. 치매에 걸려 정신이 온전치 못하지만 열심히 박수쳐주시던 할머니, 밝게 웃으며 집회를 바라보시던 할아버지, 그 자리에 있던 모든 분들이 천국갔으면 하는 작은 욕심을 내어보기도 했다.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씨 커지면서
마음에 감동과 은혜를 받게 되었다

단원 이성하

먼저 은혜 가운데 이번 39차 국내순회전도를 마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1주차에는 아직 전역을 못 했기에 순회전도 합류하지 못하였다. 기도로 도우며 긴장되는 마음으로 가사와 안무를 머리 속으로 생각을 했고, 마침내 전역하

수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닌
주님의 도우심으로 가능한 것이다.

단원 이한국

오늘부터 대망의 39차 국내순회전도가 시작되었다. 어느 때보다 많은 기도로 준비를 했기에 큰 기대와 열정을 가지고 출발하게 되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회와 함께 해주신다는 것과 기뻐하신다는 것이다.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닌 주님의 도우심으로 가능한 것이다. 우리의 수고가 헛되이 되지 않는 것도 그러한 이유에서라 할 수 있다. 가는 곳곳마다 주의 권능이 나타나는 것을 느낄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다. 한 사람이 주님을 단번에 영접한다는 것, 그것만 보더라도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이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일이 바로 복음전도의 사명이다. 우리 모두가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해야 한다. 남은 한 주간도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당해야 할 것이다.

여 2주차 때에 단에 올라가는 일반단원으로 합류하게 되었다. 입대 전에 갈보리 엔지니어를 1년 정도 했지만 단원로서는 처음 하는 것이어서 긴장이 많이 되었다.

51사단 사령부를 시작으로 20사단 78포병대대 집회까지 처음에는 실수를 안해야겠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지만 회를 거듭하면서 적응이 되어 찬양의 가사가 점점 와닿았고, 그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이 커지면서 마음에 감동과 은혜를 받게 되었다. 이런 귀한 일에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에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한 생각이 들었다.

엔지니어를 할 때 보면서 느끼는 감동보다 직접 단에 서서 느끼는 감동이 더 와닿았던 것 같다. 다시 한 번 이번 순회전도에 순간순간 세심히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

해외에서 온 편지

필리핀

사랑하는 목사님! 하나님께서는 여러 모양으로 사람들을 보내어 협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는 역사를 이곳 무더운 필리핀에서 경험하며 사역하고 있습니다.
 감사한일은 9월1일 한빛 예수원 교회가 헌당되었습니다. 이 교회는 한빛복지협회 (회장 이길용 장로) 산하 복지관에 있는 예수원 교회에서 담임목사님과 성도님들이 헌금하여 건축된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육체적으로 연약한 성도님들이 매일 기도하며 헌금하여 이곳 필리핀에 한빛 예수원 교회를 세워 아름답게 건축되어 부흥하고 있습니다.
 건축 전과 건축 후 이 교회는 많은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9월2일 모롱 이마누엘교회가 착공식을 하여 건축 중에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1992년에 예배를 시작한 교회가 건물도 없어 성도집 마당에서 예배드리며 건축을 사모하던 중 한국 IDEA선교회(회장 정상권 장로)를 통하여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선하심의 역사와 한국IDEA회장이신 정상권 장로님께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필리핀 교회가 부흥 성장하고 있으며, 부설 유치원이 27명의 학생들이 있으며 이곳에 좋은 영향을 끼치는 교회와 유치원이 되었습니다.
 9월24일 아시아 선교회에서는 캄보디아로 줄리선교사를 파송하였습니다. 바기오장로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저희 아시아선교회에서 훈련을 받고 9월24일 파송되었습니다.
 저희 아시아 선교회는 앞으로 더 많은 선교사들을 캄보디아와 미얀마 등 제3세계 국가에 파송하여 하나님의 나라 확장시키는데 더욱 힘을 발휘할 것입니다.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시기를 원하시는 꿈을 조금이나마 이루어 드릴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사역지를 위하여 기도와 사랑, 후원을 감사드립니다. 더욱 기도하며 선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필리핀에서 김윤근 목사 올림

유치장전도 감상문

News 회원소식

1. 입단
 - 이진수(21세), 유인혁(20세), 조 금(20세)가 정단원으로 활동을 시작하였고 첫 번째 순회전도를 다녀왔습니다.
2. 단원
 - 김현철간사와 김아영간사의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 박지연간사의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 김정은간사(이기성 엔지니어)가 득남하였습니다.
3. 해외순회전도 준비
 - 잠정적으로 미뤄진 캄보디아, 베트남순회전도와 제15차 해외순회전도지를위해 기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단원들이 각자의 생활비를 쪼개어 선교비 마련을 위한 적금을 하고 있습니다.

Ministries of Calvary

◀ 사역소개 ▶

국내 사역

특별전도팀 사역

***본 팀의 전도집회는** A,B,C,D프로그램 중 대상에 따라 가장 알맞은 프로그램으로 집회(공연)이 이루어지며 복된 말씀은 본 회의 메시지위원(목사 외)이 2회로 나누어 영력 있는 말씀으로 큰 은혜와 감화를 끼치게 됩니다.

***각 프로그램에 따라** 정해진 찬양과 워십 댄싱이 어우러지며 천지창조(A프로그램), 예수님의 일생(B프로그램), 탕자의비유(C프로그램), 손-판토마임(D프로그램) 등의 드라마가 각 프로그램에 포함되어 은혜와 감동이 넘치는 집회가 됩니다.

***본 집회를 통하여** ① 새 교우나 연약자는 명확하고 알기 쉽게 제시되는 복음을 들음으로써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고 ② 기성 신자들은 영적 각성과 변화를 큰 감동과 함께 경험하게 됩니다.



특별전도팀은 다음과 같이 여러 대상별로 공연을 통한 전도집회를 합니다.

군부대공연전도집회

각종 휴일과 매주일 저녁에 전후방 군부대의 초청을 받아 방문하여 공연을 통해 전도하는 가장 주된 사역

교회찬양전도부흥집회

각 교회의 초청을 접수하여 순차적으로 택일하여 주일저녁시간에 가지는 특별집회

중,고,대학교공연전도집회

중학교,고등학교,대학교의 초청을 받아 특정일에 강당 또는 교정, 야외공연장 등에서 공연을 통해 전도하는 사역

특수기관공연전도집회

교도소, 고아원, 양로원, 요양원, 재활원, 병원 등 각 특수기관의 초청으로 특정일에 방문하여 공연을 통해 전도하는 사역

순회공연전도집회

평상시 원거리 지역을 위한 각종 사역을 실행하지 못하는 것을 보완키 위하여 여름 또는 겨울의 휴가,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국내 각 지방을 연차적으로 선정하여 2-3 주간 동안 군부대, 교도소, 고아원, 양로원, 재활원, 기업체 등과 각 교회에서 특별전도집회를 하는 사역

유치장전도팀 사역

서울의 강남, 강동경찰서와 대전의 동, 서, 남, 북부경찰서, 청소년분류감호소에 있는 유치인들을 대상으로 전도하고 팀으로서 매주 토요일 사역중임.

장애인전도팀 사역

정신박약자, 농아 등 지체장애인이 수용되어 있는 수용처를 선정하여 봉사 및 선교활동을 하고 있음.

해외 사역

해외순회공연전도사역

2-3주간을 설정하여 각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선교사들의 사역을 중심으로 하여 지원하는 전도사역

선교사지원사역

재정과 기도, 순회전도, 교회건축 기타 필요한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역

교육훈련 사역

수요정기모임

매주 수요일 7시에 본부교회인 충만교회에 모여 프로그램 연습과 영성훈련을 합니다.

팀모임

매주 목요일 팀별로 모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서로의 한주간의 생활을 나누며 친목을 도모하고 뜨겁게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제자훈련반

수요정기모임과 함께 가장 주된 훈련프로그램이며 매주 토요일 5시30분에 본부교회에 모여 찬양과 기도, 성구암송, 큐티나눔, 말씀공부, 통성기도로 모든 사역을 위해 정예일꾼으로 훈련하는 시간입니다.

특별훈련

여름과 겨울방학기간을 이용하여 실행하는 국내외순회전도 전에 약 2회에 걸쳐 한주간씩 훈련을 받는 시간으로 모든 기도제목을 놓고 뜨겁게 기도하며 영육간에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입니다.

특별전도팀 집회목록 2010년 8월 ~ 2011년 9월현재

6/7	국군벽계병원	1/3	20사단108기보대대
6/14	수도군단1175공병단	1/10	27사단77연대신교대
6/21	2기갑여단6전차대대	1/11	27사단포병대대
6/28	20사단61여단	1/12	8사단73포병대대
7/5	25사단사령부	1/13	7사단5연대
7/12	육군훈련소(2회)	1/14	8사단50포병대대
7/19	수도군단1175공병단 159대대	1/15	7사단8연대
		1/17	해군6전단
8/4	31사단503여단2대	1/18	해병대1사단7연대
8/5	해군제3함대사령부 31사단93연대	1/19	해병대1사단3연대
		1/20	해병대1사단사령부
8/6	31사단93연대3대대	1/21	영덕대대
8/7	35사단직할대	1/22	서울시립 양평쉼터 (노숙자시설)
8/9	35사단105연대1대대		75사단사령부
8/11	제7공수특전여단	2/7	55사단171연대
8/12	35사단106연대	2/14	새광명교회(경기 광명)
8/13	2군수지원사령부	2/28	성심케어홈(노인요양원)
8/16	56탄약대대	3/1	30사단90여단
8/23	수방사1113공병단 157공병대대	3/7	28사단3포대 정비대대
8/30	수도군단1175공병대 155대대	3/14	1포병여단898대대
		3/21	17사단102연대2대대
9/6	평강의집(노인요양원)	3/28	701특공연대
9/13	3군사령부직할공병 환경대대	4/4	국군중앙교회
		4/11	수도군단포병대대
9/20	용인백암너싱홈 (노인요양원)	4/18	2군수96정비대대
		4/25	수도군단1175공병단
9/27	사랑나무요양원 (노인요양원)	5/2	성남요양원(노인요양원)
		5/9	오크힐스(노인요양원)
10/4	17사단100연대	5/16	7포병여단661대대
10/11	수도방위사령부	5/23	1포병여단656대대
10/18	믿음과 행함교회	5/30	20사단62여단109기계 화보병대대
10/25	한세교회		5사단신병교육대
11/1	수도군단1175공병단 159대대	6/6	매디케어(노인요양원)
		6/13	특수교육단
11/8	구세군과천양로원	6/20	60사단사령부
11/15	담안선교회 (법무부사단법일자활원)	6/27	육군종합행정학교
		7/4	61사단178연대
11/22	이천한나원(노인요양원)	7/11	6사단포병연대27포대
11/29	수연당(노인요양원)	7/18	5사단35연대
12/6	향림원(장애인시설)	7/25	20사단포병여단91대대
12/14	평강의집(노인요양원)	8/2	3군사령부직할공병환경대대
12/21	육군교도소	8/29	